중동사태와 소비국의 대응

OPEC(석유수출국기구)는 유엔에 의한 이라크 쿠웨이트의 경제봉쇄에 따른 4백만 b/d의 공급부족을 상쇄시키기 위한 생산증대를 회원국들에게 일임하였다. 8월말 빈에서 개최된 비상각료회의에서 13개 회원국 중 10개국의 지지를 얻은 OPEC의 합의 후에 사우디아라비아는 곧 자국의 원유생산량 증대에 착수하였다. OPEC회의 후에 국제 석유가격은 배럴당 4달러나 하락하였으며,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은 전쟁위험을 해소시키는 듯한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였다.

8월 27일 회의 수일전에 베네수엘라는 9월부터 증산키로 결성함으로써 증산을 둘러싼 내부의 정치적 대립에서 돌파구를 찾았다. 베네수엘라는 12월까지 50만 b/d 까지 산유량을 증대시킬 예정이다. 아랍에미리트 연합도 비상각료회의 결정에 앞서 이미 산유량을 증대시킨 것으로 믿어진다. 아랍에미리트의 산유량 증대폭은 약 50만b/d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공급감소를 메우기 위해 단순히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것으로는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지 못할 것이다. OPEC의 잉여 생산능력의 대부분은 많은 정유공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重質원유이다. 또한 잉여생산 능력으로는 경제봉쇄가 계속될 경우 오는 4/4분기의 수요증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한편 석유수입국들에 있어서 공급부족의 위협은 경질제품의 심각한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련은 이번 위기의 결과 석유收入과 향후 투자의 감소를 겪고 있다. 그러나 소련의 前 위성국들은 이제 막 싹이 나기 시작한 민주적 경제성장을 위협할 정도로 훨씬 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日本은 전례없는 비축유 방출 등의 수단을 포함하여 있을 수 있는 석유공급 부족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극동의 개도국들은 이라크·쿠웨이트로부터의 공급중단에 의한 수입부족분을 충당키 위해 국제시장에서 석유구입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 베네수엘라의 대응

시장안정을 위한 조치로 불리우는 OPEC의 증산합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베네수엘라에 의한 막후 협상의 개가로 인식된다. 이 두 국가는 이란의 반대외에 정치적 합의는 성공적으로 귀결되지 못한다는 OPEC의 전통을 일부 회원국들의 우려에 직면하였다.

이라크와 리비아는 회의 참석을 거절하였다. 이란은 공업국들이 동시에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합의한다면 생산증대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의 생산증가분이 이라크·쿠웨이트로부터의 공급중단에 의해 직접 타격을 받는 국가와 석유회사들에게 할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공급대상국가들의 리스트를 작성하였는데, 전에 이라크 또는 쿠웨이트로부터의 수입의존도가 큰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필리핀 등 개도국들이 우선 순위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사는 5개 日本계 석유회사에 대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원유의 공급계약물량을 25만

b/d 로부터 9월에 46만b/d로 확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의 석유회사들도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공급계약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인 의사를 통보받지 못했다.

油種에 대한 관심

정유회사들은 이라크 쿠웨이트의 공급 중단물량을 대체키 위해 생산되는 원유의 물량 뿐만 아니라 유종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엑슨의 레이몬드 회장은 국제 시장이 베네수엘라로부터 추가 공급되는 50만b/d를 소화할 수 있을지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레이몬드 회장은 베네수엘라 원유의 일부는 API 10의 超重質 원유인 관계로 이러한 원유의 공급이 증대되더라도 정유업계가 이를 처리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뉴욕 소재 석유 전문가인 Leuffer씨도 대부분의 생산 증가된 OPEC 원유가 重質油라는데 동의하고, 현재 정유공장의 개질 시설이 풀가동 중에 있어 이들 중질유의 미국내 도입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제품공급부족

中東사태에 따른 원유공급 감소외에 제품공급의 핍박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제품의 판매회사인 Samarec사는 극동에 대한 중간제품의 공급중단을 선언하였다. 당시 同사는 쥬베일 및 라스타누라 정유공장으로부터 약 5만b/d의 제품을 극동지역으로 수출하고 있었으나 사우디아라비아 주둔 군사용 수요에 의해 제품수출이 어려워진 때문이다.

뉴욕 소재 선물거래 중개회사 Refco사는 페만지역 정유공장의 잠재적 공급감소량은 175만b/d에 달하며, 이는 西方 수요의 약 4.3%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동사의 분석가인 O'Connell씨와 R. Steel씨가 제시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면 경제봉쇄 및 군사수요 발생으로 인해 쿠웨이트로부터 50만b/d, 이라크로부터 20만b/d,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35만b/d의 제품공급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35만b/d 추가 감소와 아울러 기타 페르시아만 국가들의 중소 규모 정유공장으로부터 30만b/d의 공급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Salomon Bros.의 분석가인 Picchi씨는 경질제품 정제 및 경질제품 제고(특히 휘발유)는 현재 세계적으로 잉여 생산능력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곧 중동위기가 종식된다할지라도 中東에는 향후 3~5년 사이에 세계 신규 정제능력의 거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정되었던 만큼 이번 사태로 인해 페르시아만에는 수년동안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지금까지 모두 200억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통하여 오늘날의 中東의 정제능력을 이룩하였지만, 향후 대규모의 자본투자는 훨씬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Picchi씨는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신규설비의 건설지연에 따라 하류부문의 공급장애는 위기 발생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계획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영석유회사인 PDVSA에 대하여 원유생산을 9월까지 30만~35만b/d, 그리고 12월까지 모두 50만b/d 증대시키도록 지시하였다고 Celestino Armas 에너지 장관이 지난 8월 22일 밝혔다.

이 결정이 있기 전 베네수엘라의 원유생산량은 173만3천b/d였다. 우선 30만b/d의 증산으로 4/4분기 베네수엘라의 산유량은 평균 190만b/d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PDVSA의 한 관리는 연말까지 베네수엘라의 산유량이 240만b/d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말한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PDVSA에 대해 증산되는 원유를 국내 또는 해외에 비축하도록 지시하였다. 베네수엘라는 국내와 카리브해 연안의 Isla 정유공장, Curacao 석유터미널, Bonaire, 그리고 前 Citgo 석유회사의 Bahamas 정유공장에 원유 및 제품 저장시설을 확장시켜왔다. 그밖에 유럽과 美國에 지분참여하고 있는 정유회사에 상당한 비축유를 갖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수출량 증가 및 원유 및 제품가격 상승(8월 현재 배럴당 24.50달러 기준으로 배럴당 8달러 수익증대)으로 '90년 12~24억 달러의 석유수출 수입 증대가 기대되어 유가상승의 혜택을 볼 것이다. 그러나 석유정책에 대한 정부의 우유부단으로 에너지부와 PDVSA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어 왔다. 양자 사이의 관계

는 지난 '85~'86년 급속히 변하는 시장상황에 대처키 위해 PDVSA가 국제 석유시장에서 가격결정의 자율권을 요청하자 이를 에너지장관이 거부하면서 가장 소원한 관계에 빠졌다. 베네수엘라는 중동위기를 맞아 잠재적 시장인 미국의 對 이라크 제재에 협조하여 증산을 주장하는 PDVSA와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정부사이에 대립관계에 빠졌었다. 일부 관리들은 美國 등 장기 고객과의 관계에 앞서 OPEC의 이상적 결속을 중시한 페레즈 정부가 OPEC 합의시까지 증산을 유보하였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전주에 베네수엘라는 휘발유 소비자 가격을 연말까지 매달 갤런당 1.4센트씩 인상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이밖에 경유 가격도 인상시켰다. 이에 의해 8월말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26센트를 기록하였다. 이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의 휘발유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다. 그러나 정부의 인상 결정에 항의하여 수개시에서 반대시위가 잇달았다. 지난 '89년에도 베네수엘라에서는 휘발유 가격의 대폭인상에 따라 발생한 소요사태에 의해 300여명의 사망자를 내기도 하였다.

동유럽의 고통

中東사태와 이에 따른 석유가격 상승에 의해 동유럽은 심각한 연료 부족사태를 겪고 있으며, 나아가 경제적 및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어 민주화로의 진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소련 당국자는 말하고 있다. 또한 '91년에 유가가 배럴당 25달러를 넘어서면 폴란드는 총 수출收入의 30%, 체코슬로바키아는 75%, 그리고 불가리아는 100%를 각각 석유수입대금으로 지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련의 對 동구 석유공급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동구 국가들은 원유 공급선을 이라크로 돌렸었다. 그러나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가 결정되자 동유럽 국가들도 참가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에 따라 이라크로부터 이미 계약된 물량과 이라크가 동구국가에 대한 50억 달러 규모의 부채 상환용으로 공급하던 석유도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중 불가리아가 가장 심한 타격을 받았다. 불가리아는 이라크에 대하여 120억 달러의 채권을 갖고 있으며, 금년안에 이라크로부터 원유를 추가 공급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 또한 불가리아는 경제봉쇄로 이라크·쿠웨이트에 대한 약 1억6천만달러의 수출감소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소련은 이라크 원유 1,825만배럴을 '90년말 5개월에 걸쳐 불가리아에 공급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소련은 이라크 원유의 입수가 불가능해지고 또한 소련의 산유량이 감소하는 마당에 불가리아의 석유공급 부족을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유고슬라비아도 이라크에 15억 달러의 채권을 갖고 있으며, 원유로 상환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유고슬라비아는 이라크로부터 원유 상환뿐만 아니라 10억달러에 달하는 對 이라크 상품수출도 불가능하다.

헝가리도 기대치 못한 소련으로부터의 석유공급 중단을 맞아 1억5천만달러의 채권을 갖고 있는 이라크를 석유공급선으로 택하였다. 채권상계용 원유의 일부는 8월 경제봉쇄 이전에 인도받았다.

헝가리, 불가리아,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구 국가들은 모두 원유부족으로 인해 정제능력에 훨씬 못미치는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수입석유의 대부분을 소련에 의존하고 있는 쿠바도 심각한 연료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심지어 소련 탱커의 도착지연으로 운전자들은 금년초부터 실시 중인 휘발유 배급물량조차 얻기 어려운 실정이다. 쿠바정부는 자동차의 엄격한 속도제한 및 냉방장치의 사용제한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지도하고 있다.

소련의 영향

소련은 페르시아만 위기의 결과로서 재정 수입감소는 물론 향후 투자감소를 겪고 있다. 소련 정부는 100억 달러에 달하는 쿠웨이트의 37만b/d 규모인 미나 알 아마의 정유공장 건설계약을 중지시킬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 계약에는 4기의 탈염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소련 정부는 필요장비의 확보 불능, 잦은 斷電, 그리고 식량공급의 취약성 등의 이유로 同 프로젝트를 포기하였다.

소련은 8월말까지 모두 880여명에 달하는 소련인들을 쿠웨이트로부터 철수시켰다. 이즈베스티아紙는 이라크 침공 전 소련은 쿠웨이트로부터 거액의 차관을 제공받

는 이외에 시베리아와 極地등 원격지의 유전개발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쿠웨이트로부터 얻어낸 바 있다. 그러나 다른 재정적 지원과 마찬가지로 이 합의도 현재로서는 실현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이즈베스티야紙는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련의 경제적 희생으로 인해 소련이 지원하고 있는 많은 수의 이라크 內 프로젝트들이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日本의 영향

日本은 이라크·쿠웨이트로부터의 석유공급 중단에 따른 원유 공급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페르시아만 위기전에 日本은 석유輸入의 12%를 이라크 및 쿠웨이트에 의존하고 있었다.

아부다비는 日本에 대한 추가공급분을 삭감한다는 앞서의 결정을 철회하고 현재 20만b/d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9월 선적분부터 對 日本 석유공급을 10% 증대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에미리트의 관계자는 말하였다.

日本은 9월에 비축유를 우선 정부 비축분부터 방출하기로 결정하였다. 日本의 정부 비축유는 모두 약 3억2천2백만 배럴로 7월 31일 소비량 기준으로 88일분을 보유하고 있다. 민간비축까지 합할 경우 日本은 5억1,924만 배럴(142일분)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다.

각국정부의 노력

- 한국의 동자부 장관은 쿠웨이트로부터 7만5천b/d의 공급이 중단된 후에 이집트의 시설에 있는 모든 비축원유를 국내로 반입하도록 지시하였다. 한국은 쿠웨이트 원유를 대체키 위해 리비아나 멕시코로부터 공급선을 물색하고 있다.
- 싱가포르는 예상 가능한 석유공급 부족사태에 대처키 위해 시민들에게 에너지절약과 대중 교통수단의 이용을 촉구하였다.
- 말레이시아는 증가하는 수요에 부응키 위해 산유량을 1만b/d 늘어난 60만5천b/d로 증가시킬 예정이며, 추가 공급의 1/2은 아세안 회원국들에게 공급될 것이다.♣

□대화시대□

대화의 분위기 조성

대화에 분위기가 있다. 피차 긴장하면 충돌을 야기하기 쉽고, 반대로 이완되면 농담이 오가다 이따금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생기기 쉽다. 따라서 대화분위기는 피차 긴장을 약간 풀되, 먼저 이쪽에서 긴장을 풀어야 저쪽 역시 긴장을 푼다.

대화분위기를 조성하는 또 다른 방편은 '유머'이다. 웃음은 순간 우월감을 느낄 때 터지게 마련이다. 얼마나 자연스럽게 바보를 연출하느냐에 따라 '유머' 농도가 결정된다.

좀 다른 각도에서 웃음을 살피면 '위트'가 있다. 보통 기지라 부르고 있다. 이 '위트'로 하여 순식간에 어려운 문제가 손쉽게 해결되고, 이 위트로 보기좋게 공격도 하려니와 또 위기도 모면한다.

고려할 또 하나의 사항은 되도록 상대방 자존심을 세워 나가는 일이다. 자존심 상하고 자부심 꺾이는 때, 계속 대화에 응할 사람은 없다. 다만 이때, 우리가 한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그것은 거짓이나 가식, 또는 과장을 피하는 일이다.

진실을 바탕에 깔지 않은 것이면 곧 설득력을 상실한다. 이야기가 길어도 진실을 보이지 않을 수 있고, 비록 이야기가 짧아도 진실을 보일 수 있다. 진실보다 강한 설득력이 어디에 있는가.